일본 家庭菜園(주택 내 텃밭) 인기

2017.11.24.

오사카지사

□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 65세를 넘어 여가를 즐기는 퇴직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, 식품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이와 관련하여 가정에서 채소를 자급자족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주택 내 텃밭이 주목을 받고 있다.

○ 일본에서 모종을 취급하는 TAKII 종묘주식회사는 20대 이상 성인 9,605명을 대상으로 주택 내 텃밭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.

- '주택 내 텃밭을 가꾸고 있다' 응답이 17.5%, '과거에 주택 내 텃밭을 가꾸었다' 응답이 30.9%로 일본인의 약 절반 이상이 주택 내 텃밭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.

- 현재 주택 내 텃밭을 가꾸지 않는 응답자 중, 채소밭을 (다시) 시작하고 싶다고 응답한 이유 중, 모든 연령층에서 '자신이 먹을 채소는 자신이 재배하는 것이 재밌어서(58.5%)'가 가장 많았으며, 다음으로 '취미생활', '가계 절약' 순이었다.

○ 주택 내 텃밭 경험이 증가한 데에는 자녀의 교육과 무관하지 않다. 초등학교 자연체험 수업으로 해바라기 등 식물을 길렀던 것에서 방울토마토나 가지 등 채소로 작물이 확대되었다.

- 이에 따라, 수확의 즐거움도 배우고, 채소를 싫어했던 아이들이 줄었으며 식물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등 올바른 식습관 개선으로 이어졌고, 자녀들의 변화에 가정에서도 텃밭을 마련하는 부모가 늘어나게 되었다.

○ 20대의 젊은 층에서는 키친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움직임도 볼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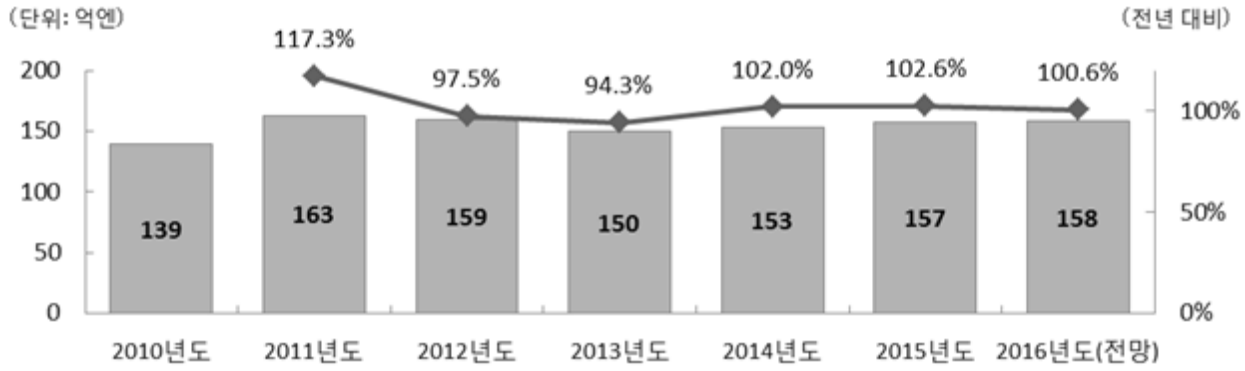
키친 채소밭은 키친 카운터나 테이블 위 좁은 공간에 채소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. 또한,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연계되는 IoT기능을 탑재한 수경재배 키트가 온도, 습도 등을 알려주어 쉽고 간단하게 채소 재배를 할 수 있다.

키친 채소재배 예	IoT연계 수경재배 키트

□ 일본 정보전문기관 야노경제연구소에서는 주택 내 텃밭용 모종(토마토, 가지, 오이, 양배추, 양파, 감자, 고구마, 블루베리, 감귤 등)의 시장규모를 생산자 출하액 기준으로 산출하였다.

○ 일본에서는 2011년에 일어난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그린 가드닝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, 2011년도 주택 내 텃밭용 모종은 전년 대비 117.3% 성장했으며, 2013년도에는 기후 불순으로 시장이 축소하였다. 2014년부터 정년을 맞이한 사람들이 텃밭에 관심을 보이며,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자 여유가 생긴 소비자가 관심을 보이는 등 시장은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다.

<주택 내 텃밭용 모종의 시장규모 추이>



*출처 : 야노경제연구소 추계

이미지 출처

- 일본 인터넷신문 Woman excite, 「カップ野菜で、楽しいキッチン菜園！ 親子で始めるかんたん野菜づくり」(2016.05.30.)
- 朝日新聞, 「家庭菜園にも「IoT」！ スマホと連携する水耕栽培キット」(2017.06.07.)

자료 출처

- TAKII 종묘주식회사 보도자료, 「주택 내 텃밭에 관한 전국조사」(2017.03.14.)
- 야노경제연구소, 「拡大する日本における家庭菜園市場の動向」
- 朝日新聞, 「家庭菜園にも「IoT」！ スマホと連携する水耕栽培キット」(2017.06.07.)

□ 시사점

○ 일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주택 내 텃밭, 키친 채소재배 등 일본 소비자의 변화와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현지 트렌드에 맞는 소형화된 식용재배 전용 샐러드용 채소, 어린이 교육용 채소종자 키트 및 관련 재배용품 등 상품제안을 통한 시장개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.